

서사하라와 모로코의 분쟁

1. 주제: 서사하라와 모로코의 영토 갈등
2. 위치: 아프리카



3. 갈등주체: 서사하라, 모로코
4. 갈등모습: 서사하라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고 모로코는 프랑스가 북부를 에스파냐가 남부를 식민통치 했다.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을 했다. 모로코도 에스파냐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다. 하지만 서사하라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로코는 서사하라한테 가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말한다. 4개의 땅 부분 중 모로코는 1개밖에 돌려받지 못했고 서사하라는 나머지말을 무시했다. 서사하라는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독립을 하지 못해 폴리사리오 전선(서사하라의 유일한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했고, 1975년 에스파냐를 독재하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죽으면서 서사하라는 독립을 하게 된다. 모로코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지 못한것이 분해 민간인에게 서사하라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일을 통해 서사하라의 북부의 2/3는 모로코에게, 서사하라의 남부의 1/3을 모리타니아에게 주는 마드리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사하라위인(서사하라의 현지인)들은 이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폴리사리오 전선을 중심으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그후 모로코는 모래로 장벽을 세웠다. 그후 모로코와 서사하라는 1991년에 휴전 협정을 맺으며 싸움이 줄어들었다.
5. 갈등원인: 서사하라와 모로코가 서사하라의 영토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영토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